



골판지용 과실포장재 관리 ③

4. 사과 포장출하 실태 및 표준출하규격

가. 포장출하 실태

사과의 포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골판지 상자이다. 골판지는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 적합하고, 대량 주문에 응할 수 있으며, 포장작업 및 취급이 용이하며, 상품의 보호성이 좋아 여러 품목에서 포장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골판지상자는 습기에 약하여 비가 올 때 작업이 곤란하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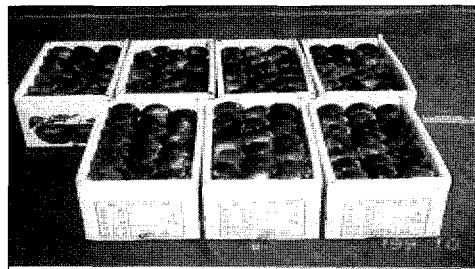
사과의 표준출하규격은 중량에 따라 총 7개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포장규격의 대부분은 10kg, 15kg의 수송용 포장규격이다. 최근 농산물의 포장규격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행동양식에 맞도록 5kg 미만의 소비자 포장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과의 표준출하규격도 수송용 이외에 소비자 포장에 대한 포장규격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과, 배 등 과실류는 다른 부류보다 포장화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에서 정한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출하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같이 표준출하규격 출하율이 낮은 이유는 포장상자의 제작 및 보급이 다양하고, 지역별로 상품의 특성에 맞도록 포장규격을 임의로 결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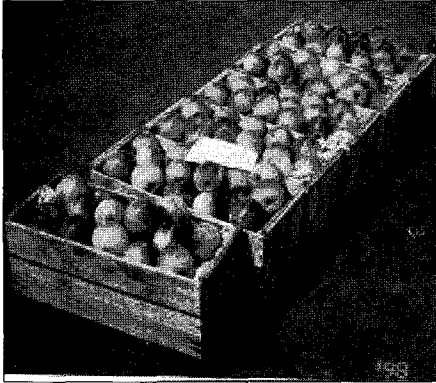
〈 사진 3·4-8 〉 표준규격 및 비규격에 의한 포장출하



(표준규격상자에 의한 출하 : 10, 15kg)



(비규격상자에 의한 출하)



(비규격 목상자에 의한 출하)



(비규격상자를 이용한 출하 : 고구마)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은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장표준화, 기기·장비의 표준화, 시설규격의 표준화 등을 통해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사과 표준출하규격

사과의 수송용 포장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골판지상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지 농협이나 유통센터(농산물포장센터, 물류센터 등)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사과, 배 등 과실류 품목의 포장화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품의 단위당 가격이 낮고 포장화가 다소 어려운 일부 업체류, 근채류 등의 포장화율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포장화 및 표준출하규격에 의한 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 생산자조직과 도매시장에 포장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포장재 구입비를 보조해 주고, 규격출하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포장출하를 유도하고 있어 포장출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과의 표준출하규격은 중량에 따라 7개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 포장인 5kg은 2종이고 나머지는 10kg, 15kg의 수송용 포장규격이다. 포장단위(중량)별 세부내용은 < 표 6 >과 같다. 기타



품목에 대한 표준출하규격의 내용은 관련자료¹⁾를 참고하면 된다.

5. 농산물 포장의 문제점 및 표준규격출하 제고방안

가. 문제점

- 품목별 포장화율이 아직도 미흡함

농·임산물 등 124품목에 대하여 387개의 표준출하규격이 개정, 고시되어 이 규격을 사용토록 홍보를 통해 지도,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도 포장화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과실류의 포장화는 상당수준 진척되었으나 일부 과채류의 포장화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 : 배추 8.3%, 무 5.7% 등

< 사진 3·4-9 > 끈으로 묶어 포장한 배추



- 표준규격 출하를 위한 기반여건 미비

농촌인구의 고령화, 포장기술 미숙 등 산지에서의 포장·규격출하 여건이 열악하고 농산물포장센터

1)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발행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행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집」 또는 유통공사의 인터넷(www.afmc.co.kr)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산지유통시설 활용시 추가비용 부담등의 원인으로 산지유통시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생산자가 기존의 포장방법을 선호하여 포장방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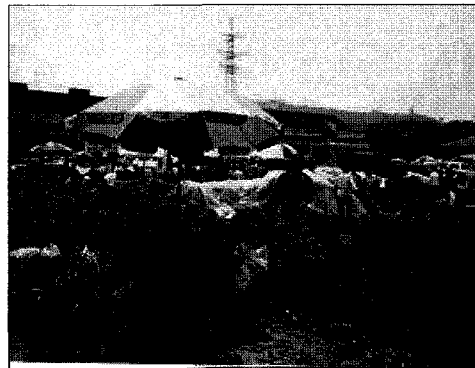
□ 비포장 출하로 물류효율 저하 및 도매시장내 쓰레기문제 발생 초래

포장화율이 저조하거나 산물형태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경우 하역(상차 및 하차)작업시 인력작업에 따라 작업시간 지연, 작업인원 과다투입, 차량대기시간 지연 등 물류효율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내에서 재선별 포장함으로써 유통비용 추가 발생 및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사진 10 > 비포장 출하로 인한 쓰레기 발생



(배추 재선별·포장에 의한 쓰레기 발생)



(주대마늘 출하로 인한 쓰레기 발생)

□ 표준규격 출하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음

표준규격 출하품과 비규격 출하품과의 차별화가 매우 미약하여 출하자들이 애써 표준출하규격(포장규격 및 등급규격 등)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음. 뿐만아니라 도매시장 종사자(경매사, 중도매인)들이 표준출하규격품 보다는 비규격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출하자의 표준규격 출하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 포장출하에 따른 출하자의 비용부담이 큼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부피에 비해 단위당 가격이 낮기때문에 포장을 하게되면 그만큼 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즉 포장에 따른 포



장자재 구입비, 포장에 따른 인건비 등 부가적인 비용의 발생이 출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 포장화 및 표준규격출하 제고방안

□ 규격출하품과 비규격출하품에 대한 차별화 추진

출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표준출하규격의 출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조치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비규격출하품 출하자에 대해서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하여 부담시킨다.
-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 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행위부담금을 부과하고 다듬기, 재포장금지 이행을 강제 조치한다.
- 비규격출하품 출하자에게 청소비, 하역비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 규격출하품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 우수출하자 포장재비 등을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도매시장내 경매시 경매순서, 경매장소, 경매시간대 등에 대해 우대 한다.
- 비포장품은 단계적으로 도매시장내의 반입을 제한한다.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시스템의 정착

선별·포장기에 의한 기계화·자동화가 가능한 품목이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여 점차적으로 실시 지역이나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동선별, 공동출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농협등 생산자조직을 규모화·체계화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 활성화 유도
 - 전문 지도인력 확보 및 조직의 체계화를 통하여 생산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산지 출하기능 전담토록 유도하여 표준규격출하 유도
- 산지유통시설을 표준규격출하 거점기지로 육성
 - 현재 산지유통시설의 가동율이 저조하나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및 가동율 제고로 산지 규격출하 거점기지로 육성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보급 및 홍보



유통중사자(생산자, 출하자,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센터, 도매시장 등)들이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품목별, 출하규격별, 등급별로 원색화보 형태로 제작, 보급하며 농업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검, 농협, 유통공사 등)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유통중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